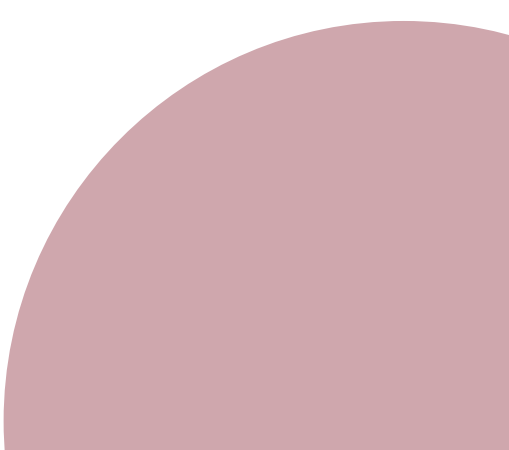


# 국어에 대한 고찰?

## 언어와 매체 심화탐구 보고서

2025-10-12

황태준  
중앙고등학교  
2025  
2학년 7반 31번  
지도교사 국어과 유 미 선생님



## 목차

I. 음운론에 대하여 .....	3
I.1. 교육과정 개선 방안 .....	3
I.2. 규범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 .....	5
규범의 태생적 특성으로서의 간섭 .....	5
복합어 경계에서 ‘ㄴ’ 첨가 현상 비판과 대안 .....	7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	9
II. 한글의 과학성에 대하여 .....	11

## I. 음운론에 대하여

음운론을 배우며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역시 음운 변동이다.

음운 변동은 세계 어느 나라의 언어를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발음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일어난다. 다만 효율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올바른 발음 규범에 따라 발음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발음을 하다 보니 발음이 용이한 쪽으로 변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문법에서는 음운 변동을 대치(교체), 축약, 첨가, 탈락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두었고, 학교 문법 교육과정에서는 각 범주에 속하는 음운 변동 현상 일부를 배우고 암기하게 된다. 이 중 음운 변동의 원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대치 중에서도 동화라고 생각된다.

### I.1. 교육과정 개선 방안

동화(同化)는 어떤 음운 또는 음성이 발음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음운 또는 음성과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학교 문법에서는 음운의 동화만을 배우며, 모음동화보다 자음동화의 비중이 훨씬 크다. 자음동화는 조음위치동화와 조음방법동화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는 국어 자음의 음성적 분류 방식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은 이 기준에 따라 비음화부터 시작하여 많다면 많은 수의 동화 현상을 배운다. 이러한 과정 편성은 충분히 체계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체계를 정립하고 과정의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에 집중하는<sup>1</sup> 교육과정 편성 주체의 입장과 음운론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 중학교 3학년 국어 시간에 처음 “올바른 발음 방법”이라는 것을 접한 본인의 경험과, 이번 시험기간에 발등이 불이 떨어져 언어와 매체를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모 타 자사고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동창과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언어와 매체의 초장을 떼어야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할지에 대한 방법을 나름대로 고안해 보았다.

먼저, 처음 언어와 매체 공부를 시작하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다고 가정하고 엄청난 양의 외계어를 뱉어대는 국어의 음운 소개 부분이다.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한자어라고 하는데, 한자 교육이 제대로 선행되지 않은 상태<sup>2</sup>에서는 용어를 보고 그 뜻을 알 수 없으니 공부를 그만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sup>1</sup>솔직히 이 부분에서도 그리 엄밀하지는 않은 것 같다.

<sup>2</sup>후술하겠지만 한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후음, 비음, 유음 등 조음방법과 조음위치에 대한 것은 당장 외우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sup>3</sup> 전후설모음, 고중저모음, 개폐모음, 평원순모음 등등이 등장하는 시점부터는 슬슬 더 하기가 싫어질 것이다. 이런 개념어가 무엇을 의미했는지조차 떠올리기도 힘든데 갑자기 음운 변동에 들어가서 “평파열음 ‘ㄱ’, ‘ㄷ’, ‘ㅂ’ 뒤에 비음 ‘ㄴ’, ‘ㄹ’이 오면 조음방법동화가 일어나 파열음이 비음 ‘ㅇ’, ‘ㄴ’, ‘ㄹ’이 된다.”와 같은 말을 들으면 언어와 매체 선택을 후회하는 지경이 될 것이다. 이 짓거리가 언제 끝날까 생각하며 책장을 아무리 뒤로 넘겨 보아도 이러한 양상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결국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로도 중3, 고1, 고2를 거치며 문법을 때려 치우겠노라 선언한 친구들은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았던 것 같다.

근원적인 문제는 어려운 한자어가 아니다. 시작부터 무조건 암기로 인해 갈려나가는 정신력과 의욕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암기를 시키지 않으면 될 일이다. 많은 교사와 강사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 보통 교육적 견해는 이 둘 중 하나로 수렴하게 된다.

- “암기는 필수이다. 무식하게 외우던 이해를 해서 외우던 외워라.”
- “그냥 외우는 것은 쓸모가 없다. 이해를 하면 암기가 된다.”

모두 타당하다. 특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특히 시험까지 여유가 있다면, 교육과정은 개념을 주입하여 숙지하게 만드는 것이 전에 이해하고 깨닫는 즐거움을 체험시켜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배움에 대한 자세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음운론에서 이 포괄적인 말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열쇠는 음운의 근본, 음성이다. 계속해서 발음해 보게 하고, 규범이 언어 현상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는가를 체험시켜 주어야 한다. 또, 용어의 한자 뜻풀이를 하고 구강 구조 모식도 등을 보여주고 혀로 자신의 입 안을 훑어보게 하는 등 자신이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말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발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교과서와 수많은 교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에서 차용된다. 하지만 비중이 적다는 것이 문제이다. 책과 학원, 인강 강사는 참고만 하라는 식으로, 무슨 숙제 하듯이 후딱 다루고 넘기고, 학생들은 이런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건너뛰고 치워버린다. 어차피 이런 것을 공부하는 목적은 언어학, 국어학, 음운론이라는 학

<sup>3</sup>이 문제를 인지한 것인지 이러한 용어들이 순우리말로 바뀌는 추세이긴 하나 그런 용어로는 쓰기도 말하기도 생각하기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문을 탐구,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들 그걸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합당해 보이는 결정을 내린 결과이다. 결국 원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복문 밖에 나가떨어져 구르고 있고, 무식한 암기법과 꼼수만 만연하다. 어쩌다 보니 이러한 암기법과 꼼수를 더 많이, 재미있게, 잘 가르치는 강사가 일타 취급을 받게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논점은 이에 완벽히 상충한다. 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 어쩌면 암기보다도 더 어려워 보이는 원리를 터득한다면 온갖 암기법, 꼼수 그리고 일타 강사의 농담과 훌륭한 교수법 등이 없어도 문법은 재미있다. 재미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해도 더 잘 되고 기억에도 더 잘 남는다<sup>4</sup>. 모든 규범과 현상은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고, 따라서 규범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원리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례임을 깨달아 원리가 규범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유추하고 확인해낼 수 있다면 이것만큼 효과 있는 학습법이 없을 것 같다<sup>5</sup>.

## 1.2. 규범이 언어에 미치는 영향

음운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규범화되면 몇가지 문제가 생긴다. 규범은 건전한 언어의 보전과 국민의 올바른 언어 습관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규범이라는 엄밀한 기준이 생기면 규범이 기인하는 언종의 언어 습관을 헤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규범의 태생적 특성으로서의 간섭

음운 변동에서 우선되는 논점은 이것이 규범화되었을 때 필수적인 현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음운 변동은 일어났을 때 발음을 편히 할 수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발음할 수 있는 것에 적용될 때도 있다. 가만히 발음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동을 적용하지 않고 발음했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미 규범에 따른 발음을 계속해 왔기 때문인데, 언어가 그렇게 바뀐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꺼림칙한 부분은 존재한다. 특히 국어에서의 음운 변동은 다른 종류의 소리가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소리로 통일되는 단순화의 양상을 보인다. 일곱 중성법 및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탈락 등이 그 예시이다<sup>6</sup>. 그런데, 일부 음성적 구개음화, 경음화, 양순음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수의적인 현상들이 규범에 반영되고 그것을 다시 언종이 수용하는 순환을 거쳐 갈수록 만연해 지게 된다면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

<sup>4</sup>힘들게 배우거나, 기억에 남을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암기는 자동으로 된다. 영어 단어장은 백날 외워도 까먹지만 감명 깊은 시, 소설 구절이나 영화 대사 따위는 몇 번만 보고 들어도 외워지는 것이 이러한 원리이다.

<sup>5</sup>객관성을 추구하는 보고서에 적절한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서 고1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신 수업들이 문법에 아무런 기초가 없어서 포기할까 생각했던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up>6</sup>물론 이 현상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말소리의 수가 줄어들면 의미 구분의 여지가 줄어든다. 그 극단적인 예가 일본어로, 가능한 소리가 기본 오십 음에 요음(拗音), 축음(促音), 탁음(濁音), 발음(撥音) 등의 조합 이외에는 없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빈도 있게 사용되는 말소리는 더 제한적이라, 고유어 체언이나 용언에서 특히 동음이의어나 강세로만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가 많은 편이다. 유명한 예시로는 ‘<sup>あめ</sup>아메’가 있다. ‘<sup>あめ</sup>雨 [아메]’는 비를, ‘<sup>あめ</sup>飴 [아메]’는 엿, 청, 사탕 등을 의미하는데, 둘은 최소대립쌍으로 구분 방법은 높낮이 강세<sup>7</sup>가 ‘아’에 있는지 ‘메’에 있는지가 다이다. 이것은 한 가지 예시를 든 것이고, 용언에서는 완벽히 발음이 같은 것이 수도 없이 존재해 그런 경우 청자는 문맥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그 예시로는 ‘<sup>か</sup>ける[카케루]’<sup>8</sup>가 있다. 특히 일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어지러울 지경인데, 이 말은 무려 네 개의 아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 <sup>か</sup>掛ける: (옷, 전화, 잠금 등을) 걸다
- <sup>か</sup>驅ける: 달리다
- <sup>か</sup>賭ける: (돈 등을) 걸다
- <sup>か</sup>欠ける: 부족하다, 깨지다

이런 단어들은 보통 의미의 명확성을 위해 사용을 피하지만, 어떨 때는 동음에 따른 중의성을 이용한 문학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비슷한 예시는, 논지에 조금 엇나가기는 하지만 이미 한국어에 존재한다. 통시적 관점에서의 음운 변동으로 인해 ‘<sup>ㄱ</sup> /ε/’와 ‘<sup>ㄱ</sup> /e/’라던가, ‘<sup>ㄴ</sup>’와 ‘<sup>ㄷ</sup>’와 ‘<sup>ㄴ</sup>’가 사실상 같은 발음이 되었고<sup>9</sup>, 두음법칙과 구개음화 때문에 ‘녀자(女子)’가 ‘요자(遼字)’와 같거나 비슷한 발음이 되어가고 있는 등 자잘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규범 외에도 계속해서 발음이 바뀌면서 알아듣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른 문제는 말이 알아듣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구개음화와 경음화가 난무하는 러시아어의 경우, 개별 음운의 발음과 단어에서 각 음운의 발음의 괴리가 매우 크다. 일부 키릴 알파벳의 원래 발음을 보면, ‘<sup>д</sup>’는 영어의 ‘d’ 발음, ‘<sup>т</sup>’는 영어의 ‘t’ 발음, ‘<sup>г</sup>’는 영어의 ‘g’ 발음, ‘<sup>к</sup>’는 영어의 ‘k’ 발음, ‘<sup>е</sup>’는 ‘<sup>ㅐ</sup>’의 발음이 나야 하지만, 아래는 몇 개의 예시를 보면 원래 나야 할 발음과 실제 발음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up>7</sup>일본어의 유일한 강세는 고저 강세이다.

<sup>8</sup>‘る’는 한국어의 ‘다’와 같이 용언에서의 기본 활용형이다.

<sup>9</sup>이것은 특히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되는데, 모음의 음양 균형을 깰 뿐 아니라 표기의 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발음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день[진/djeni/] – 원래 발음: 덴/덴 /deni/
- сказать[스까자찌/skɐ'zati/] – 원래 발음: 스카자트 /skazat/
- бог[보흐/box/] – 원래 발음: 복/bog/
- мед[메트/mjet/] – 원래 발음: 메드/mjed/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단점은 특히 외국인 등 언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 또는 음성인식 시스템 등이 말을 알아듣기 매우 어려워지고(실제로 러시아는 알아듣기 어렵다), 올바른 발음으로 구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이미 많다면 많은 음운 변동을 때문에 외국인과의 기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며, 모국어 화자들끼리도 종종 못 알아들어 다시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생기고는 한다. 한국어에서의 예시는 당장은 좋은 것이 떠오르지 않아 조금 억지스러운 것을 적어 두지만 분명히 이러한 경우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 논지이다.

- 앞문, 압문(押文)
- 국물, 밖에, 단고, 국밥 등등...

#### 복합어 경계에서 ‘ㄴ’ 첨가 현상 비판과 대안

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언어가 변할 때 규범이 그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을 보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현상에 대한 고찰이라던가, 바뀌어 가는 모국어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 보다는 규범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게 될 것 같다.

먼저 ‘ㄴ’ 첨가 현상을 보도록 하겠다. 실제로 언중의 습관에 따라 ‘ㄴ’이 첨가되는 현상도 ‘ㄴ’ 첨가로 분류되어 규범에 반영되어 있다. 좋은 예시는 ‘웃 입어’로, [오답어]가 아니라 [온니버]가 된다. 하지만 정말 억지스럽다고 판단되는 예시도 있다. 바로 복합어의 경계에서 받침 뒤에 ‘ㄴ’나 반모음 ‘ㄹ’ 계열 모음이 오면 ‘ㄴ’이 첨가된다는 부분이다. 먼저 흔히 제시되는 적용 예시를 보자.

- 맨입[맨닙], 한여름[한녀름], 남존여비[남존녀비], 눈요기[눈뇨기]
- 담요[담뇨], 숨이불[숨니불]
- 식용유[시공뉴], 직행열차[직행널차], 금융[그뿔/금뿔]

맨 윗줄은 ‘ㄴ’이 첨가되어야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예시들이다. 둘째 줄은 ‘ㄴ’이 들어 가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가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것들이다. 셋째 줄은 명백히 ‘ㄴ’이 조금 억지스럽게 첨가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셋째 줄부터 보자. 이 경우들에서 ‘ㄴ’ 첨가의 본질은, 복합어의 경계에 있는 두 형태소가 분리된 것임을 발음을 통해 드러

내기 위해 그것을 끊어서 말하는 것이다. [남존녀비]처럼 한 덩어리가 아니고, <sup>남</sup>尊/<sup>여</sup>卑처럼 떨어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연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sup>10</sup>. 똑같이, 식용유도 그냥 한 형태소가 아니라, <sup>식</sup>용/<sup>유</sup>, 직행열차도 <sup>직</sup>행/<sup>열</sup>차라는 것이다. 금융은 특별한 경우로, 표의문자인 한자 한 글자를 의미를 가진 형태소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지만, 형태소로 인정할 경우 끊어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sup>금</sup>融처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끊어서 발음하는 것은 연음을 하지 않고 반모음이 반자음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일종의 강세를 두는 것이지, ‘ㄴ’ 같은 애매한 음운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싶다. 같은 조건에서 발음할 시 첫 줄처럼 어떤 조건에서만 ‘ㄴ’이 들어가서 발음되는 것은, 먼저 끊어 읽는 규칙이 적용된 후, 음성적 구개음화가 일어난 ‘ㄴ’이 선행하는 비음 종성, 또는 혀가 경구개와 가까운 전설 고모음과 닮았기 때문에, 첨가되는 것이 발음이 끊기지 않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 줄의 ‘ㄴ’ 첨가는, 먼저 형태소 경계에서 끊어 읽은 후, 종성 ‘ㄴ’/n/ 이후 바로 뒤의 ‘ㅣ’/i/로 이어질 때 설단이 경구개 쪽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짧게 경구개에 가까운 치조음(alveolo-palatal transition)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ㄴ’처럼 들린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맨입[맨닙]’의 예시를 들어 국제음성기호(이하 IPA)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표준발음법 ‘ㄴ’ 첨가 /mɛn.nip/보다는 /mɛn.ip/ → /mɛnɪp/ → /mɛɲip/ → /mɛɲɪp/처럼 설단이 치조와 경구개를 스치는 과정에서 /ni/ 또는 /ɲ/가 들리는 것이다.

따라서 셋째 줄의 올바른 발음은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sup>11</sup>.

- 식용유[시공'유], 직행열차[직행'열차], 금융[그뽕/금'용]

이때 ‘’’ 기호에서는 종성을 연음하지 말고<sup>12</sup>, 반모음 ㅟ의 /j/ 발음을 강하게 해야한다. 만약 이 강한 /j/<sup>13</sup>를 발음해 주는 것이 새로운 음가를 첨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첨가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ㄴ’이 아니다. 특히 ‘식용유’와 ‘직행

<sup>10</sup>이 경우는 조금 특별한데,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남존녀비가 본 형태가 되는 것이므로 ‘ㄴ’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른 예시들은 정말 명백히 ‘ㄴ’이 들어가는 것이 억지로 보이는 것들이다.

<sup>11</sup>이때 새로 제시된 ‘’’ 기호는 연음 방지 부호로 러시아어의 ь(твёрдый знак)와 흡사한 역할이다. 모음 앞의 /j/가 전 음절과 연속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sup>12</sup>파열음의 성격을 가진 종성 음은 폐쇄, 지속 후 파열하지 말고.

<sup>13</sup>/j/는 흔히 영어의 ‘y’ 발음이다. 한국어에서는 ‘j’로 나타내는 것이 ‘반모음’이지만, 영어나 독어 등 특히 게르만 계열 외국어에서는 자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므로 자음으로 생각하고 후행 초성에 첨가된다고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열차'에서는 종성 'ㅇ/ŋ'이 '연음'<sup>14</sup>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끊어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PA로 명확히 표현하면, 본래 인정되는 표준 발음인 [시공뉴]는 /ɕigjoŋnju/이고, 여기서 제안한 발음인 [시공'유]는 /ɕigjoŋ'ju/ 또는 /ɕigjoŋl̥ju/ 정도가 되겠다. 종성 'ㅇ'이 아닌 다른 종성이 선행하는 '금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표준 발음은 /kum.njuŋ/이고 제안하는 발음은 /kum̥'juŋ/ 또는 /kum̥l̥juŋ/이 되겠다.

요약하자면, 상술한 경우의 'ㄴ' 첨가 환경에서는 'ㄴ'이 첨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음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일부 경우 'ㄴ' 음가가 들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ㄴ'을 실제로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 선행하는 종성(특히 비음)의 설단이 후행하는 음소와 겹쳐 발음되어 청각적으로 /n/이 첨가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ㄴ'처럼 들리는 것을 'ㄴ' 첨가라고 인정한다면 이 경우에는 우선 끊어 읽은 후 'ㄴ'이 첨가되는 방식이 될 것이므로, 비음 종성이 'ㅇ'계 반모음(전설 고모음) 앞에 있는 환경에서 'ㄴ'이 첨가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복합어 경계에서 받침 뒤에 'ㅇ'나 반모음 'ㅇ'계열 모음이 후행하면 형태소 독립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연음을 방지하고 후행 음절의 'ㅇ' 또는 반모음 'ㅇ'를 강하게 발음한다. 다만, 비음 종성 뒤에 'ㅇ'나 반모음 'ㅇ'계열 모음이 올 경우 끊어읽을 때 치조와 경구개에 설단이 스치는 것을 고려하여 'ㄴ' 첨가를 인정한다.

애시당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발음하는 방법과 규범이 달랐기 때문이다. 원래 위에 제시된 것처럼 끊어서 읽던 언중의 습관을 억지로 'ㄴ' 첨가로 편입시켜 별도의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 규범에 넣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이미 표준발음법으로 굳혀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지 제안해 본다.

###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규범이 언어에 영향을 준 다른 예시로는 사잇소리 현상에 따른 사이시옷 표기가 있다<sup>15</sup>. 복합어의 경계에서, 사잇소리 또한 위에서 본 'ㄴ' 첨가와 유사하게 형태소를 구분하기 위해 첨가된다. 그런데, 1988년 한글 맞춤법 규정 제정에서의 사이시옷 규정 이후, 비교적 최근인

<sup>14</sup>독자적 견해지만 잘 생각해보면 종성 'ㅇ'도 /ŋ/의 음가를 가지므로 연음된다. 비상식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이것은 현재 국어의 초성 'ㅇ'이 음가가 없는 '자리표시자(placeholder)'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으로 '등용문'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龍과 龍을 끊어서 보지 않고 하나의 형태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옛한글의 ㅇ/ŋ/을 빌려 말이 되게 표기해 보자면 '등용문'이 '드웅문'처럼 될 것이다.

<sup>15</sup>재미있는 사실, '사잇소리 현상[사이소리 현상/사인소리 현상]'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적용되었다.

2008년 표준국어대사전 개정판이 발간되며 ‘최대 값’ 등이 ‘최댓값’처럼 한 단어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사이시옷 표기 규범에 의해 사잇소리가 나는 단어들은 표기에 사이시옷을 적도록 되었다. 예를 들어 초불은 촛불이 된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문제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점은, 표기 규칙이 일정하지 않고 온갖 예외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사잇소리가 나더라도 종성 ‘ㅅ’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적지 않는다. 또, 한자어와 한자어 간 복합어에서는 사잇소리가 나더라도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는다. 외래어가 포함된 복합어에서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며, 한자어 사이시옷 표기에는 또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횃수(回數)’의 여섯 개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는 이상한 예외도 있다. 사이시옷의 표기가 사잇소리가 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면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는 어차피 ‘봄비’의 발음이 [봄비]인지 [봄뽀]인지 알 수가 없고, ‘대구법’이 [대구법]인지 [대꾸법]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사이시옷은 한글 표기의 표의성을 위배하게 되는데, 사이시옷은 중세국어의 된소리부호 ‘ㅎ’(여린히을)<sup>16</sup>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음주의를 따를 것이라면 전부 표기할 것이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일관성만 헤치게 된다. 차라리 ‘뽀비’, ‘뽏구법’처럼 하란 말이다. 당연한 이유로 현대 국어에서 앓, 앓 따위를 쓸 수 없으므로 실현이 불가능한 말이다. 그러므로 사이시옷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사실, 사이시옷은 표음주의 조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초성에서는 /ʔ/<sup>17</sup> 음가가 있었지만 종성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는 음가가 없고 등장 빈도도 적던 ‘ㅎ’과 달리 ‘ㅅ’은 종성에서 널리 쓰이는 음가가 이미 있어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이시옷을 그대로 발음하여 ‘최댓값’이 [최대값/첼대값]보다 [최뎡값/첼뎡값]으로 더 많이 발음되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자 줄지에 사이시옷을 포함한 발음도 표준발음으로 인정되게 되어버렸다. 규범이 언어를 망친 것이다.

사이시옷은 이 외에도 전산처리에 비효율적이라는 것, 경음화를 가속화하는 게 아니냐는 것 등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본인은 그냥 사이시옷 표기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사 결과 전면 폐지 이외에도 모든 곳에 표기하자는 의견, 된소리로 적자는 의견, 새로운 기호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 많은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sup>16</sup>히을?

<sup>17</sup>배에 힘을 주고 ‘을!’ 할 때 초성의 소리이다. 이 음가는 동남 방언 등 일부 사투리에서 남아 있다. 2<sup>2</sup>[이의 이승], e<sup>2</sup>[히의 이승] 2<sup>e</sup>[이의 히승], e<sup>e</sup>[히의 히승] 같은 경상도 사투리 농담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 II. 한글의 과학성에 대하여

기말고사 범위... 미완성 ^^7

감사합니다.